

함안, 화학공장 화재사고...

인명피해 없으나 5500만원 재산피해 ... 탈수 중 발화

1월22일 오전 4시50분께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산업단지에 위치한 3층짜리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제품 탈수과정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불이 시작됐다는 공장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22>